전세값 비싼 광주·전남 '임대업 천국'

1인 평균 19~29채 세 놓는다

전국 평균 7채보다 3~4배 보유 … 매년 급증세

광주·전남지역의 주택 전세시장이 뚜렷한 강세를 보이면서 지역 내 주택임대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 임대주택 수가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특히 전남의 경우 전세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최근 3년간 임대사업자들의 평균 보유 주택 수가 5배 가량 늘어나면서 사업자 1인당 보유 주택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남의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1인당 사업용 임대주택가구 수는 29.48가구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05년(18.97가구)보다 55.4%(10.51가구) 늘어난 것으로, 3년 전인 2003년(6.53가구)에 비해선 451%나 급증했다.

전남은 특히 347명의 임대사업자가 총 1만229가구의 주택을 소유하면서 1인당 보유 주택 수가 전국 평균(7.65가구)은 물론, 16개 시·도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했다.

광주도 지난해 말 현재 임대사업자 1인당 보유 가구 수가 18.86가구에 달하면서 2003년(7.09가구)에 비해 266%나 급증했다. 현재 광주는 597명의 임대사업자가 1만1천257가구의 주택을 갖고 있어 전국 6대 광역시 가운데 사업자 1인당 보유 가구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광주·전남 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이 많은 것은 지역 내 집값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데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도 70%를 웃돌 만큼 높게 형성돼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광주는 지난달 현재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이 73.5%에 달한다. 이는 전국 평균(54.3%)보다 19.2%나 높은 수준이다.

또 지역 수요자들의 전·월세 선호 현상으로 인해 전세시장이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의 동반 증가세에 한 몫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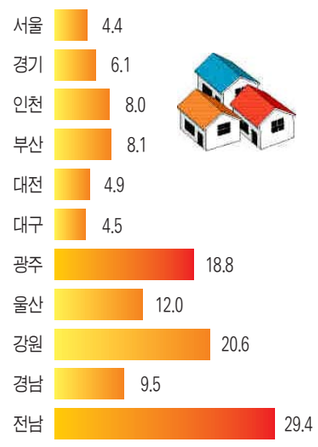
실제 광주·전남은 주택 매매시장이 극심한 침체에 빠진 것과는 달리 전세시장은 꾸준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올들어 지난달까지 광주·전남의 아파트 전세시세는 각각 0.8%, 1.8% 상승했다. 이 가운데 광주시 남구는 올해 전세가가 5.0%나 뛰었으며, 순천시와 목포시도 각각 2.3%, 1.7% 오르는 등 전세 강세 현상이 뚜렷하다.

부동산114 김규정 팀장은 "광주·전남은 전세선호 현상이 워낙 강한 데다 타 시·도에 비해 마땅한 부동산 투자처를 찾기가 어렵다는 점 때문에 임대사업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지역별 임대사업자 평균 보유주택

(단위:가구)



2008 우편연하장 첫선

'2008 우편연하장'이 첫 선을 보였다. 광주우체국 등 전국 우체국에서 1일 판매에 들어간 '2008 우편연하장'은 보내는 사람이 메시지를 직접 녹음해 상대방에게 전할 수 있는 음성 녹음 카드(1천850원) 등 14종으로, 우편 요금이 포함돼 있어 별도로 우표를 붙이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병원 리모델링에 골프접대에 회식비…

'리베이트 제약사' 200억 과징금

소비자 피해 추정액 2조 1,800억

병원과 약국, 의약품 도매상 등에 약품 공급 대가로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200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일부는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제약사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9억7천만원을 부과하고 이들 업체 중 동아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녹십자, 중외제약 등 5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탈세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법 위반 사실을 국세청에 전달하고 의료법, 약사법 등의 위반 여부도 가리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통보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10개 제약사가 병원과 약국, 도매상 등에 무차별적으로 제공한 리베이트성 자금규모가 무려 5천228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했다.

또 이들이 매출액의 평균 20%를 리베이트로 사용한 점이나 국내 제약산업 시장규모(10조5천400억원) 등을 감안할 경우 이들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한 의약품 시장 내 소비자 피해는 2조1천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은 골프와 식사접대는 물론 부부동반 해외여행에 병원 리모델링비용, 의료기기 구입비용까지 제공하는 등 '전방위로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제약은 약국에 대해 부부동반 홍콩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한 사실이 적발됐고 삼일제약은 병원 의사에 대해 가족동반으로 해외여행을 갈 수 있도록 경비를 제공했다.

중외제약은 자사의 약에 대한 처방을 늘리기 위해 모 병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3천만원 가량 제공했고 골다공증 검사기계 등 의료기기나 PDP TV, LCD 모니터 등을 제공한 경우도 많았다.

녹십자와 중외제약 등은 수도권 소재 병원에 약을 공급할 목적으로 내과 개원 의사들의 세미나를 지원하거나 학술대회를 후원했다. /연합뉴스

제약사들 리베이트 '펑펑'… 약값 인하는 쥐꼬리

매출액의 10~20%를 리베이트로 쓰는 제약사들이 건강보험 약값 인하에는 극히 인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보건복지부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와 '2007년 10월 현재 실거래가 인하내역'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리베이트 등으로 적발된 10개 제약업체가 등록한 건강보험 의약품 1천499품목 가운데 약값을 한번도 내리지 않은 품목은 전체의 78.3%인 1천174개 품목에 달했다.

또 1% 미만으로 인하된 품목은 59개 품목으로 전체 건강보험약품의 82%가 1% 이내로 가격이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파프리카 수출 1,000만弗 돌파

신선농산물로는 처음

강진과 화순 등이 주산지인 파프리카의 대외 수출이 국산 신선농산물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1천만달러를 넘어섰다.

농협 계열사인 ㈜농협무역은 지난달 29일자로 올해 파프리카 수출액이 1천만달러를 넘어섰다고 1일 밝혔다.

농협측에 따르면 국산 신선농산물 가운데 단일품목으로 한 해 수출 1천만달러를 돌파한 것은 파프리카가 처음이다.

농협무역은 이같은 성과에 대해 "지난 95년 처음 파프리카 수출을 시작한 이후 농가들이 꾸준히 품질·가격경쟁력을 키우고 주요 수출국인 일본 현지에서 특판전 등 마케팅 활동을 펼친 결과"라고 분석했다.

현재 파프리카는 강진, 화순, 남원, 강원 철원, 경남 진주 등에서 주로 생산되며 이들은 일본, 대만, 홍콩 등에 수출되고 있다. 농협무역은 연말까지 파프리카 수출액이 1천2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기아차 10월 판매 14만636대

작년비 35%↑… 월간 최대

기아차는 올해 10월에 내수 2만5천104대, 수출 11만5천532대 등 총 14만636대를 판매해 역대 최다 월간 판매 실적을 올렸다고 1일 밝혔다.

기아차의 종전 월간 최고 기록은 작년 11월의 13만2천497대다.

작년 동월과 비교해 내수는 8.0%, 수출은 42.7% 늘었으며 총 판매량은 35.0% 증가했다.

기아차는 이에 따라 올해 10월까지 누적 판매실적이 내수는 22만2천121대, 수출 87만7천821대로 작년 동기에 비해 각각 2.5%, 11.5% 늘었으며 총 판매 실적은 109만9천942대로 9.6% 늘었다. 내수는 오피러스가 1천771대가 팔려 지난해 6월 부분변경 모델을 선보인 이래 17개월동안 고급 대형차시장에서 1위를 고수했다.

내년 1월부터 경차 편입으로 인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모닝은 지난달에 3천100대가 팔리면서 누계 판매량이 2만2천209대로 작년 연간 판매실적(2만346대)을 넘어섰다.

고유가 시대가 지속됨에 따라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카렌스도 10월에 3천325대가 팔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1.8% 늘었다.

수출은 국내 생산분이 9만1천904대로 작년 10월보다 22.4% 증가했으며 해외공장 생산분은 올해부터 유럽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서 3배 가량 늘어난 2만3천628대를 기록했다.

특히 유럽 시장을 겨냥한 씨드는 10월에 1만1천103대가 팔리면서 올해 누계 실적 10만2천384대를 기록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광주·전남 3분기 신설법인 감소

광주·전남지역의 3.4 분기중 신설 법인 수가 전분기보다 감소했다.

1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3.4분기 중 광주·전남의 신설 법인 수는 689개로 전분기(808개)보다 119개 줄었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333개로 81개, 전남은 356개로 38개 각각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이 86개로 가장 많이 감소했고 건설업 51개, 제조업은 8개가 각각 줄었다.

신설법인의 자본금 규모는 2억5천만원 미만 소규모 창업이 576개로 전체 신설법인의 83.6%를 차지했고 5천만원 미만 47.9%, 5천만~2억5천만원 미만 35.7%, 2억5천만~5억원 미만 10.3%, 5억~10억원 미만 3.8%, 10억원 이상 2.3% 등이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